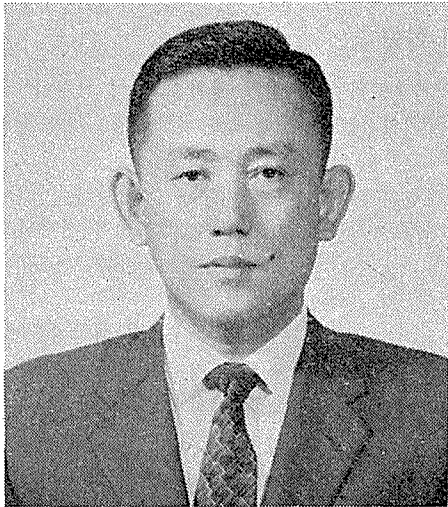


科學하는 人口의 底邊擴大 위한

風土造成에 注力

과학기술처장관 **崔 亨 燮**



새 해에도 자립경제의 터전을 보다 堅固하게 하고 타력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 기술의 土着化·신 기술의 研究 開發·과학 기술자의 養成·국의 기술 用役의 育成등 우리 과학기술의 安着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호응과 과학하는 인구의 底邊擴大를 위해서 과학하는 風土 造成事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쏟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당면한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72년에는 우리의 태세를 더욱 정비하고 重複과 浪費의 素地를 제거 보다 유기적이고 능률적인 시책을 구현토록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과학 기술에 관한 企劃 調整업무를 보다 置重 強化해 나갈 뿐만 아니라 새해는 3차5개년계획 시행의 첫 해이자 안보위주의 국민 총력이 結集되어야 할 時期입니다.

과학 기술행정도 국가 전략 산업의 연구 개발방면을 重化學工業 防衛産業 수출산업 原資材 국산화 식량증산 등에 둘 것이며 총력 안보에 발 맞추어 국가 비상사태에 적응하는 연구 개발 체제를 확립하여 미력이나 총력을 경주하여 자립 자위의 터전을 닦는데 기여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안보의 해 72년을 맞는 과학기술 행정도 여타 분야와 다를바 없이 緊張과 새로운 자세의 확립이 요청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안보의 基盤構築도 其實은 국가 산업의 底力培養에 있고 이 또한 산업 기술의 발전과 연구 개발의 소산임을 생각할 때 과학기술이 맡은바 그 所任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올 해 施政 方向

과학기술 진흥기반과 風土造成強化

産業技術개발의 促進·國際技術交流 擴充

— 朴大統領 연두 巡視서 崔長官 보고 —

과학기술처의 72년의 주요 시책의 방향을 대체로 과학기술진흥의 기관과 풍토의 조성 및 강화 실업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 기술교류의 확충등 3개 시책을 세웠다.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처 순시에서 밝힌 崔亨燮장관의 보고 및 시책방향은 국 공립연구기관의 문젯점을 구체적 사업목표가 없고 영세규모기관이 분출해 있고 기능과 시설이 중복되어 있

는 점행정적 및 그의관리비가 과다한 점 연구성과가 미약하며 대학과의 협동 체계가 결여되었다는 점등을 들고 그 대책으로 1.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은 단계적으로 특수 법인체로 바꾸거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하고 2. 비슷한 목적의 연구기관은 정비통합하고 3. 규격이나 품질검사 등으로 나눠 연구기관마다 기능을 전문화하며 4. 연구직과 교직의 점

지 계약연구시설 활용등을 통한 대학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할 계획이 현재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주요시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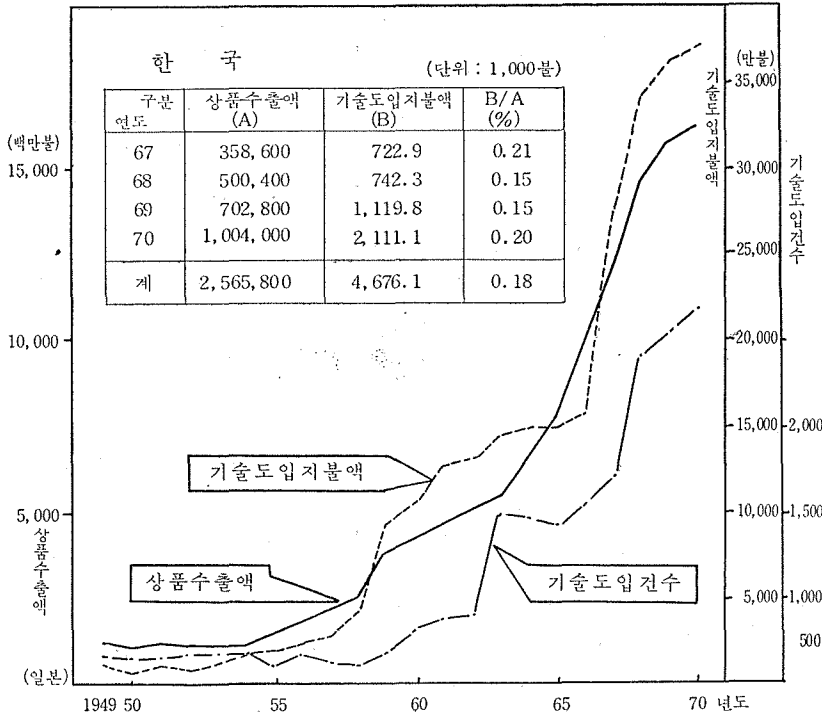
연구비 지원

과거치의 올해 연구비의 총액은 총 2억6백70만원인데 그중 중화학 공업분야가 전체의 43%인 8천9백만으로 으뜸이고 방위 산업에 5천만원 기술과학에 3천만원 농림수산에 1천5백만원 자원조사·기술조사·사회간접자본등에 각각 7백50만원씩으로 되어 있다.

법령 정비

상품의 수출과 기술의 도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상품 수출과 기술도입과의 연관



- ① 기술도입지불액 / 상품수출액 = 2.6% (1970년도) ③ 도입기술의 소화계량비: 전당 6,000만원
- ② 자체연구개발비: 전당 2,000만원 ④ 기술도입 지불액: 5,000만원

에서 고도의 수출신장은 그에 따른 기술의 도입이 뒤따라야 함으로 「기술개발 촉진법」을 추진중이다. 주요골자는 자본제도 입 기술도입 원자재수입을 하는 사람은 그 기술을 소화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를 의무적으로 積立하게 되어 있고 우수한 기술개발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租稅를 감면해 준다는 골자다.

그런데 정부가 기술도입에 지불한 돈은 67년 68년에 각각 70만弗선이었으며 69년에는 119만弗 70년에는 211만弗에 달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정리·강화·육성을 위해 「연구직 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연구사업에 적합한 임용체계를 확립하여 연구실적에 따라 자격과 승진을 시켜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연구원과 국·공립 대학교수간의 겸직을 허용하고 계약연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연구기관보다 우대할 수 없었던 연구원의 신분이 크게 개선된다.

제도의 신설

「국가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 기관이 설치되면 제도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최고 정책을 심의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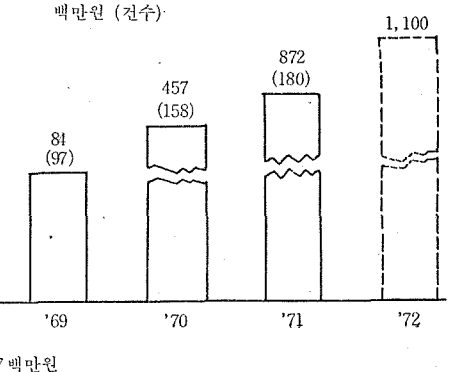
의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각부처의 장관과 약간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국가적인 중요 연구개발사업을 결정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의 조직과 관리도 관장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업무를 조정하고 협조하기 위한 「기술개발 조정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과학기술처의 주요 업무는 연구개발사업 중요한 과학기술기관의 육성 과학기술 풍토의 조성사업등으로 되어 있다.

연구기관 육성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연구(Big Project)를 담당하는 한편 민간의 수탁연구 활동도 적극화시켜 금년도 연구계약고를 11억원으로 잡고 있다. 昨年度에는 8억7천2백만원이었다.

한국과학원은 世界水準의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來年度의 개강을 앞두고 세계적 碩學으로 주임교수진을 구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과학기술 情報「센터」는 과학기술 文獻의 번역「센터」를 설치



할 계획이다.

기술 협력

금년도의 用役 및 물자등 기술수원액은 6백57만2천弗에 9백 30명의 기술연수생이 해외로 파견되고 2백45명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초청되며 해외에 대한 기술공여로 1백64명이 배정 되었다. 또한 올해 정부가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27명을 유치 이 중에서 12명을 永久誘致한다.

기술 수원 및 공여

기술 수원			기술 공여		
내 용	실('51~'71)	적 계 획	내 용	실('63~'71)	적 계 획
파 견	9,498명	930명	정 부	69명	24명
초 청	2,339명	245명	한·미공동	680명	120명
용역및물자	106,878천불	6,572천불	기 타	72명	20명

재외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

실 적 ('69~'71)			계 획		
영 구	일 시	계	영 구	일 시	계
23명	47명	80명	12명	15명	27명

생활의 과학화

과학기술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 풍토의 조성사업을 벌이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橋梁役割을 하는 한편 「생활의 科學化」를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7천만원을 투입, 국립과학관의 전시시설을 3천1백50명으로 확충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다.

한편 역원의 과학기술 基金에서 나오는 益金 80%를 국내기업의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지원한다.

기상의 근대화

우리 나라의 기상학적 특성에 알맞는 예보틀고 산업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應用氣象을 개발한다. 이를 위한 要員양성목적으로 「기상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며 76년까지 5개년 계획으

로 완성키 위하여 UNDP자금 90만弗과 內資 1억2천2백만원을 투입한다.

(UNDP/SF)

(단위: 백만원 천 불)

자 금	연 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내 자		5.7	56.0	54.6	4.3	2.1
U N D P		245.7	242.2	273.2	123.2	363.3

자원의 조사

東·西海의 해저탐사와 광물자원 조사 그리고 지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나라 최초의 해양탐사선인 「탐양호」를 3월부터 東·西海의 대륙붕 특히 牙山灣의 砂金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국립 지질조사소는 20년의 宿願이던 지질연구 시험실을 영동지구에 신축한다.

정부 행정업무의 컴퓨터 처리

구 분	71 년 실 적	72 년 계 획
기계 처리	재무부 결산업무 농업 전서스등 6개업무	20개 기관 33개업무
타당성조사	15개 기관 23개 업무	20 " 50 "
업무개발	" "	20 " 33 "

행정의 「컴퓨터」화

국립 중앙전자 계산소는 今年中에 정부의 20개 기관의 33개의 행정업무 「컴퓨터」로 처리해 주고 정부기관의 「컴퓨터」공동이용체제를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20개 기관의 50개 업무에 대한 「컴퓨터」처리의 타당성 조사와 또 20개 기관의 33개 업무에 대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개발을 지원한다.

원자력 사업

한국 원자력연구소를 새로 설립하여 원자력사업을 맡게 하여 基本動力爐에 관한 기술을 익히고 앞으로 개선될 제 2호 원자력 발전소에 우리 기술을 참여시키고 국산 「우라늄」광등을 이용한 핵연료의 개발과 사용된 연료의 재처리문제등 集約된 목표를 달성한다.

또한 放射線을 이용한 癌진료사업은 올해 8만5천명을 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하여
자립경제 이룩하자